

청소년 언어폭력 추방 심포지엄

일시: 2005. 10. 7.(금) 15:00~17:00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 대강당

주최: 청소년위원회,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협의회

주관: 국어문화운동 본부

진행 순서

사회: 김두루한 선생(서울 광양고 교사)

15:00 개회

15:05 인사 최영희(청소년위원회 위원장)

15:10 제1 주제 발표 최용기 박사(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5:25 제2 주제 발표 강호영 선생(서울 성남고 교사)

15:40 토론 김형배 박사(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 국어상담소 상담원)

15:50 토론 박영하 선생(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16:00 토론 백은숙 선생(학부모, 국어문화운동 문장사)

16:10 토론 전누리 학생(구로고등학교 3학년)

16:20 자유 토론

17:00 인사 남영신(국어문화운동 회장)

목차

1. 학교,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실태와 추방 대책 / 최용기1
2.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와 추방 대책 / 강호영11
3.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은 정신세계를 황폐화한다 / 김형배 ... 26
4. 토론문 / 박영하 28
5. 청소년들이 왜 언어폭력을 쓰는가? / 백은숙 30
6. 토론문 / 전누리 32

<제1주제>

청소년 언어폭력 실태와 추방 대책 - 학교, 직장,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

최용기(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우리말에 “말만 잘하면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세에 유리하다.’라는 것이며 또한, 말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 말을 할 때는 애써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말을 하면서 보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 가정에서나 할 것 없이 말로써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남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주어진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을 해결해 나가며 얼굴을 붉혔던 사람과 화해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고 남의 얘기도 잘 들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떤 태도로 듣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됴됨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의 됴됨이 즉, 개인의 사고방식을 보여 주고 나아가 한 사회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선현들은 어법과 언어 예절을 철저히 가르쳤고 항상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언어생활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의 말에 온갖 비속어와 욕설들이 섞여서 나오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학교 등을 구별하지 않고 주위 사람은 아랑곳없이 큰 소리로 떠들고 듣기에도 민망한 온갖 욕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이런 언어폭력 때문에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발표문은 이런 언어폭력의 유형과 실태를 살펴보고, 그 영향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언어폭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청소년 언어폭력의 유형과 그 실태

먼저, 언어폭력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언어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言語暴力):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헐박 따위를 하는 일. (예: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언어폭력이 난무하다.)

(*) 폭력: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함.

위의 뜻풀이만 보면 언어폭력의 범위는 ‘음담패설이나 욕설, 헐박 따위를 하는 일’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성차별 언어 사용, 비속어 사용, 폭언이나 극단적인 언어 사용, 인격 모독의 말 사용이나 글을 쓰는 일’ 따위가 더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언어는 인간 상호 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인간은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고 값진 존재이지만 인간은 이런 언어 사용 능력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인간이 먹고 자고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언어의 기능에 ‘폭력’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려 하지는 않았습니 다. 언어학자 제프리 리치(geoffrey leech)는 언어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보 기능, 표현 기능, 지시 기능, 미적 기능, 친교 기능이 그것입니다. 그 어 디에서도 ‘폭력’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언어의 기능에 또 다른 기능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어폭력’의 기능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비속어’, ‘은어’, ‘유행어’도 언어폭력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들 언어는 대부분 그 시대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개인 심리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언어폭력’의 범주에 넣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현대 언어에서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상스러운 욕설, 성차별 언어 사용, 폭언이나 극단적인 언어 사용, 인격 모독 발언, 헐박 따위를 하는 일이나 비방의 글을 쓰는 일’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이런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에 개인의 심적인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어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욕설, 비방, 도배, 성차별이나 성희롱(음담패설) 언어 사용, 유언비어 유포, 폭언이나 극단적인 언어 사용 따위가 있을 것입니다.

1) 욕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흥분이나 감정에 들떠서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고의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이나 통신 매체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욕설의 유형에는 무의식중 발생하는 욕설, 고의를 가지고 발설하는 욕설, 재미로 하는 욕설 따위가 있습니다.

2) 비방: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헐뜯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 말하거나 전자 게시판에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방은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도배: 도배는 대화방이나 전자 게시판을 혼자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연속해서 올리거나 아주 큰 글자 또는 그림으로 제목을 달아서 인터넷 창이 늦게 뜨도록 만들거나 다른 제목의 글들을 보는 데 방해하는 행위 따위를 말합니다. 또, 인터넷 창에서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지 않고 의미 없는 혼잣말만 계속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성희롱(음담패설): 성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우편이나 대화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전자우편이나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로 성적인 내용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성적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널리 퍼뜨리는 행위 따위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남성의 폭력적 성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며 음란하고 상스러운 욕설은 심한 경우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힐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매우 심각합니다.

5) 유언비어: 유언비어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그것을 인터넷상에 퍼뜨려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록 자기가 조작하지는 않은 거짓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거나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일지라도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 폭언이나 극단적인 언어: 폭언은 난폭하게 하는 말입니다. 폭언이나 극단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심한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폭언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거나 극단적인 언어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언어폭력의 유형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어폭력은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실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 내에서 ‘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 낙오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언어폭력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겠

습니다.

다음은 언어폭력의 사례를 청소년의 대화와 학교, 직장, 가정의 언어생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또한, 언어폭력의 통계 자료를 살펴본 것입니다.

(사례 1)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언어폭력(청소년의 대화 중)

“흥, 너처럼 혼자 잘난 체하는 애들이 꼭 있더라. 정말 xx가 없어. 그래 너 잘 낫다.”

“니 얼굴이 얼굴이냐! 제발 좀 고쳐라. 한 100억은 나오겠지.”

“xxx은 얼굴을 10번 수술해도 마찬가지로! 견적이 안 나온대.”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해! 왕따시켜야 돼.”

(사례 2) 과도한 욕설(청소년의 대화 중)

“야, 이 싸가지 없는 xx 야.”

“젊은 놈이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젊은 여자 등쳐 먹느냐?”

“너 xxx 알바지. xxx 야.”

(사례 3) 청소년이 자주 쓰는 욕설, 비속어, 은어

“제기랄 뽕신”(←병신), “퀘퀘이”(←개새끼), “존나”(←매우)

“뚜껑 열리다”(←열받다), 뺨치다/뺨까다(←거짓말하다), 썩까다(←모른 척하다)

“깔따구”(←남자 친구), 담탱이(←담임선생), 썩까하다(←멋지다)

(사례 4) 교육 중 욕설 표현(학교 수업 중)

한 교육 사이트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는 ‘xx 년’, ‘x 새끼’ 등의 욕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국사 과목 수업에서 일본인은 ‘쪽바리 x’으로 지칭되고 역사적 사건 중 한국에 불리했던 사건은 ‘지랄’, ‘조져버렸다.’ 등으로 표현됨.

(사례 5) 적나라한 언어폭력(피시 통신)

“너는 xx다.”

“더러운 x.”

몇 년 전 피시 통신을 하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x 양은 전자 게시판 을 통해 알게 된 남자 대학생과 만나 사귀다가 이 사실이 회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적나라한 표현과 함께 x 양을 욕하는 말을 듣게 되자 심하게 고민하다 끝내 목 을 매 자살한 것이다.

(사례 6) 직장에서의 언어폭력(신문 기사 중)

회사 국내 영업팀 ㄱ팀장의 별명은 ‘싸이코’입니다. 주특기는 ‘팀원들 자존심 꺾

기'. 팀원들이 업무 보고를 할 때에 자신이 이해가 안 되거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지랄하네.”가 튀어나옵니다. 또 “산골 구석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일도 못한다.”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고 얼굴색이 검은 편인 여자 직원에게는 “얼굴이 못생겼다.”라며 비웃습니다. 직원 씨는 “팀장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밥맛이 떨어지고 일할 맛도 사라진다.”라며 “항의해도 그때뿐이어서 회사를 옮기는 것을 고민 중이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례 7) 일상 대화에서의 성차별 대화(부부간의 대화 중)

남편: 날씨 좋은데 산에 가자.

아내: 오늘 할 일 많아요.

남편: 꼭 오늘 해야만 돼?

아내: 애들이나 데리고 가요. 이불 훌청 다 뜯어 놓았는데 ……

남편: 나 혼자 어떻게 애 둘씩 데리고 가니? 다른 여자들은 어디 가자면 좋아하는데. 너 왜 그러니? 남편이고 애들이고 간에 모두 귀찮아 죽겠지?

아내: 그럼 산에 갔다 와서 자기가 훌청 빨아 줄 거야?

남편: 너 미쳤니?

아내: 빨래 좀 해주면 미친 거야?

남편: 도대체 너 무슨 낙으로 사니? 집안일 외에 취미 좀 가질 수 없니?

아내: 그래서, 자기한테 집안일 해 달라고 조른 적 있어? 해본 적은 있고?

남편: 다른 집 여자들은 혼자서 잘만 하더라.

아내: 당연하지. 마지못해 하고 있다고 소리치지는 않으니까.

남편: 그래도 너처럼 불만 많은 여잔 없을 거다.

아내: 파출부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집안일에 불만이 있을라고.

남편: 너 그런 여자밖에 안 보이니?

아내: 그러는 자긴 왜 그런 여자들은 안 보이지?

남편: 너 남편이 도둑질이라도 해 오면 신명 날 여자야.

아내: 그러는 자기는 내가 손이 터지든 빈혈로 쓰러지든 그저 쓸고 닦고 아끼고 아껴야만 신명날 남자 아냐? 그래도 반질반질한 손 가진 여자 보면 아내가 한심스럽겠지?

남편: 시끄러워? 앞으로 어딜 가자고 해봐라.

아내: 누굴 위해 가는 건데?

아이들: 아빠, 빨리 산에 가자.

남편: 엄마 때문에 안 가. 아빤 잠을 잘 거니까 엄마하고 가 봐.

(사례 8) 사이버상의 언어폭력(문자 메시지)

“당신 마누라가 oo 지역 출신 남자랑 놀러다니네요.”

“당신 마누라 단속 잘하세요.”

“남자가 한둘이 아니네요.”

이런 문자가 오는 날이면 남편은 만취 상태로 들어와 아내를 마구 폭행합니다.

(통계 자료 1)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보고서

지난 2005년 5월 23일 국립국어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언어생활”에서 고등학생들 대부분(76.4%)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 욕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신세대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것에 대하여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에 발표한 국립국어원의 우리나라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도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50.5%가 된다고 나타났고, 이 중에 20대는 무려 62.3%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55.6%)와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27.3%)라고 하였으며, 특히 20대는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나 되었습니다.

(통계 자료 2) 직장 내 언어폭력 통계

취업 사이트 ooo(oojob.co.kr)이 직장 내 언어폭력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인 62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언어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76.8%가 직장 상사에게서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의 가장 흔한 유형은 ‘업무와 무관하게 인격 모독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이 2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비꼬거나 조롱하는 말’이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욕설(10.5%)’과 ‘상대방의 약점이나 신체 결함을 비웃는 말’(6.1%)도 곧잘 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어폭력을 당한 직장인의 56%는 ‘업무 의욕이 사라진다.’라고 답해, 언어폭력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퇴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으로 ‘만성 피로’(34.8%)를 꼽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고 ‘두통’(24.5%)과 ‘소화 불량’(19.5%), ‘수면 장애’(13.4%) 등을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들 직장인의 대부분은 술(40.4%)과 담배(29.6%)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청소년 언어폭력의 영향

이처럼 언어폭력이 자주 발생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그만큼 커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폭력은 이제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폭력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심각한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1) 공동체 사회의 붕괴

민주 국가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의 대화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매개 요소입니다. 대화의 기본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만약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공동체 사회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언어폭력은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면 건강한 민주 사회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언어폭력이 없는 사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언어는 그 사회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언어, 건강한 청소년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피해자의 명예훼손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결코 참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언어폭력 때문에 가정 파탄을 가져오기도 하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청소년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도 언어폭력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사생활 침해

언어폭력은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몹시 나쁜 행동입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마구 퍼뜨린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디에서도 명백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 사생활을 누가 엿본다면 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사생활이 중요하다면 남의 사생활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폭력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교양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수없이 후회를 할 것입니다.

4)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언어 동등권 실현이 불가능

언어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언어폭력을 사용하면 언어 동등권 실현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언어 동등권은 언어를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데 언어폭력 때문에 이런 동등한 권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해자는 강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는 약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가로막는 사회의 큰 장애 요인일 뿐이지

결코 강자나 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어폭력이 없는 사회가 언어 동등권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폭력 때문에 언어 동등권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코 아름다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언어 장애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갈 까닭이 없습니다.

4. 청소년 언어폭력에 대한 추방 대책

언어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어폭력이 없는 사회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대화 예절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가. 청소년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

○ 개인의 편견을 바꾸어야 합니다.

① 욕을 한다고 스트레스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계속 욕설을 주고받게 되고 끝내 싸움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가중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욕설을 하면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욕설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욕설을 섞어서 말을 하면 자기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때문에 자기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욕설은 남들에게 교양이 없는 사람이나 힘만 앞세우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③ 욕설은 친근감의 표현이며 욕설을 해야 더 정답게 느껴진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청소년들 상당수가 욕설이 친근감의 표현이며 욕설을 해야만 정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받아들이며 같은 사람이라도 기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과 같은 욕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그 결과 서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④ 남들도 다 욕을 하므로 나도 욕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남들도 다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타인을 존

중하고 인터넷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또한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자신도 욕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먼저 옳은 길을 향해서 나갈 때 잘못된 길을 가던 다른 사람도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언어폭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이 서로 오해나 실수를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되받아치는 경우에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욕설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 지혜이며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

○ 장난이라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언어폭력은 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지만, 농담이 점점 심해지면서 언어폭력으로 발전하게 되고 급기야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할 수 있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성적인 제의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전자 게시판이나 대화방, 쪽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인 제안이 들어옵니다. 성적인 제안이나 유혹에 처음엔 호기심 때문에 쉽게 응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실제 만남으로까지 이어져 사회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농담이나 제안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 신고 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언어폭력이 심할 경우에는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소년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린 다음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자 게시판이나 쪽지,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복사해 두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부끄러워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청소년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

1)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명백한 죄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문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신적 정체성도 학습하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행동들도 실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그들이 보고 듣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들을 개선하지 않

고는 청소년들의 언어폭력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코미디, 그리고 뮤직 비디오 같은 대중 매체를 보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잔인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 줍니다.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청소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자주 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야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주인은 결국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나 기성세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언어 예절을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또한 그들이 스스로 언어 예절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에 대하여 교육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관심이 없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곳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는 청소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 스스로 예절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 청소년의 올바른 대화 예절

1) 말을 하는 예절

- ① 대화 상대에 따라 말씨를 결정합니다.
- ② 감정을 평온하게 갖고 표정을 부드럽게 합니다.
- ③ 자세를 바르게 하고 공손하고 성실하게 하여 의젓함을 지닙니다.
- ④ 대화 장소의 환경과 상대의 성격, 수준을 참작하여 화제를 고릅니다.
- ⑤ 조용한 어조, 분명한 발음, 맑고 밝은 음성, 적당한 속도로 말합니다.
- ⑥ 듣는 사람의 표정과 눈을 주시해 반응을 살핍니다.
- ⑦ 상대가 질문하면 자상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말하면 성의 있게 듣습니다.
- ⑧ 표정과 눈으로도 말하는 진지함을 잃지 않습니다.
- ⑨ 남의 이야기 중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 ⑩ 화제가 이어지도록 간결하게 요점을 말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 ⑪ 말의 시작은 양해를 얻어서 하고 끝맺음은 요령 있게 합니다.

2) 말을 듣는 예절

- ① 말을 귀로만 듣지 말고 표정, 눈빛, 몸으로도 듣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② 바르고 공손한 자세와 평온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 ③ 상대가 알아차리도록 은근하면서도 확실한 반응을 보입니다.
- ④ 말허리를 꺾으면서 끼어들지 말고 의문이 있으면 말이 끝난 뒤에 묻습니다.
- ⑤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할 때에는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의 양해를 구합니다.
- ⑥ 몸을 흔들거나 발로 엉뚱한 장난을 치지 말고 열심히 듣습니다.
- ⑦ 말을 듣는 중에 의문 나는 점은 적습니다.
- ⑧ 대화 중에 자리를 뜰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합니다.

5. 뻘말

요즘 텔레비전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는 비속어나 외래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품위 없고 천박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며, 한편으로는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고유어나 귀에 익은 한자어 대신에 외래어와 외국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너무 오버(over)하지 마!’, ‘저지 페이퍼(judge paper)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이프(wife)에게 미안하다.’,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부족하다.’ 등이 그런 예들입니다. 더욱 심한 현상은 혼종어(混種語)를 마구 사용하는 것입니다. ‘롱다리(long 다리), 썰링맨(썰링man), 야한 걸(야한 girl), 예쁜 걸(예쁜 girl), 야한 밤(야한 밤), 왔다리 갔다리, 개품, 반짝 퀴즈’ 같은 괴이한 말들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언어 예절에 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므로 노인과 어린이들이 모두 시청하고 있는데 이 점을 망각하고 선정적이고 상대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멸시하고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누워 봐. 아이들은 아직 초저녁인데.’, ‘너는 내 여자니까.’, ‘무식한 놈이 힘이 세.’, ‘월세 사는 주체에 무슨 돈?’ 등 이런 표현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저급하고 매우 거칠게 합니다.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대자보라는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제는 인터넷 게시판이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점점 심화하여 가고 있으며,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요체는 한마디로 개인과 개인이 대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개인들이 표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예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부드럽고 예절 바른 문장 쓰기와 논리적 설명을 부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익명을 무기로 청소년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비논리적 문장으로 앵무새처럼 자신

의 주장을 되뇌기만 하는 게시판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 치는 소년의 우화와 같습니다. 양 치는 소년 우화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 계속해서 유포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익명의 언어유희의 폭력은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장터의 민주주의가 진실을 담보할 수 없듯이, 언어 예절 없는 인터넷은 사회의 새로운 불안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제어할 만한 힘을 아날로그 세대는 갖고 있는 것일까?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매체를 이미 부여받고 왕성한 의사소통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세대들의 이러한 왕성한 의사소통 속에서 기왕에 통용된 언어 예절이 강조되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그냥 두고 방관만 하다가는 전체의 언어 예절이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비속한 말을 입에 달고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점잖은 발언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난무하는 언어폭력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정규적인 글쓰기가 힘에 겨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상적인 어투로 글을 쓰려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세력들에게 강압되어 그들의 의사소통 공간이 본의 아니게 좁아질 위험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실명의 글쓰기 공간이 확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익명의 무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나 여과 없이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신의 인격을 파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언어 예절에 대한 교육이 먼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언어폭력을 추방하는 길은 먼저 내 주변의 언어 환경에 유해 요소는 없는지 이를 살펴보고 청소년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는 건전한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이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청소년 스스로 언어 예절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서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제2주제>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 및 대처 방안

강호영(서울 성남고 교사)

1. 유비쿼터스의 세계



“옷장 거울 앞에 서면 어울리는 옷 착용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고 거실에 설치된 벤치에 앉으면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TV 화면을 통해 멀리 떠나 있는 가족을 만나고 밖에서 휴대폰으로 집안의 가스밸브를 잠근다.”

이 장면은 최근 모 건설회사가 TV를 통해 자사의 아파트를 광고하면서 ‘유비쿼터스 아파트’라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이러한 집들로 가득 찬 유비쿼터스 도시도 등장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인구는 세계 2위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 외에 새로운 가상공간인 사이버 스페이스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가까이 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語)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1988년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제조회사인 제록스의 와이저(Mark Weiser)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와이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메인프레임과 퍼스널컴퓨터(PC)에 이어 제3의 정보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 유비쿼터스 통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곧 컴퓨터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냉장고·안경·시계·스테레오 장비 등과 같이 어떤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정보기술(IT) 환경 또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을 뜻한다.

한편, 단순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인터넷 사용 인구가 양적으로만 많은 것은 아니다.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각종 커뮤니티 등 오프라인의 세계와 또 다른 온라인상의 새로운 사이버 세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사이버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 온라인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붉은 악마의 월드컵 응원,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시위 등 많은 일들에서 보듯이 네티즌들의 힘이 오프라인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

다음은 학생들에게 통신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모두 쓰게 하여 얻은 설문 결과이다. 즉, 가장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언어라고 할 수 있다.

- -jj : 어이없다는 표정
- .- : 어이없음.(표정)
- ^^ : 웃는 모습
- ^o^ : 기쁨 표정
- _-_- : 무표정
- ~질 : 어떤 행위. 예를 들어 ‘디카질’
- ~하3 : ~해요.
- ~하삼: ~ 해요.
- ~하세염 : ~하세요.
- 82 : 빨리
- G.G : Good Game
- HAND : Have a nice day 의 축약어.
- KIN : ‘즐’과 같은 의미. KIN을 세워서 보면 ‘즐’이 된다.(*)
- OTL 혹은 OZL 혹은 orz : 좌절(사람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어뜨린 형상)
- ㄱㄱ : Go Go 라는 의미
- ㄱㄱㄱ? : 개그맨? 정말 어이없다는 뜻.(*)
- ㄱㅅ: 감사
- 간지 : 일본어 칸지(感, 느낌)의 변화된 모습. 흔히 ‘느낌이 온다.’는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 강간(관광) :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월등히 유리한 상황에서 끝낸 경우 ‘강간 (관광) 당했다’고 한다.(*)
- 강추 : 강력추천
- 강퇴 : 강제퇴장
- 강고 : 그냥 하자

캠 : 게임

공구 : 공동구매

구라 : 거짓말(*)

깁치지마 : ‘까불지 마라’ 비속어(*)

ㄴㄴ: NO NO 즉 아니

담탱이 : 담임 선생님(*)

도촬 : ‘도둑 촬영’의 줄임말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된장 : 쟁쟁(*)

등업 : 등급을 올려달라는 의미.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

DDR : 자위 행위(*)

려차 : ‘fuck’를 한/영 키 누르고 치면 우리말로 ‘려차’가 나옴.(*)

로긴 : 로그인

멜 : 이메일

므훗 : (상황에 따라) 기분 좋을 때. 혹은 상대방을 비웃는 웃음.(*)

ㅂㅅ : 병신(*)

방가 : 반가워

불펌 : 불법 다운로드

뽕 : 문희준의 앨범에 나오는 노래 중 “Break it”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왜 날 Break it”이라고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왜 날 뽕”이라고 들리며 문희준이 개념 없는 발언을 하여 욕먹을 때 한창 유행한 말.(*)

ㅂㅂ2 : 빠이

빠이염: 헤어질 때 인사.

빨랑 : 빨리

빨짓 : 쓸모없는 짓(*)

ㅅ : ㅆ 대신 쓰는 경우가 많음. 예) 햏어요.

ㅅㄴㄹㅇ : 비속어 ‘시발놈아’각 음절의 첫소리(자음)만 적은 것.(*)

삼질 : 허튼 짓(*)

샤크 : 섹스(*)

상냥 : 비속어.‘쌍년’(*)

쇄 : 시발놈(롬)아(*)

섭 : 서버

섬 : 시험

스레기 : 쓰레기. 더럽다는 뜻.(*)

시러 : 싫어

싱하형 : 이소룡 비슷한 사이버상의 캐릭터.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하는 인물로 무한대의 파워를 가진 무서운 사람을 뜻한다.

싸이질 :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를 하는 것

쌤 : 선생님
 쌤까다 : 무시하다(*)
 썸따 : 서버 다운
 썸다 : 무시하다.(*)
 ㅇㅇ : 응. 그렇다는 뜻으로 동의를 나타낼 때 쓰인다.
 ㅇㅋ: OK
 ㄱ 또는 mlm : fuck you 란 의미로 쓰임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형상)(*)
 ㅠ.ㅠ / ㅠ_ㅠ / ㅌ.ㅌ : 우는 표시
 아뒤 : 아이디
 야동 : 야한 동영상
 애자 : 장애인(*)
 얼짱 : ‘얼굴 짱’, ‘얼굴 짜증나’의 중의적 표현(*)
 얼짱 : 얼굴이 못생겼다는 뜻.(*)
 열공 : ‘열심히 공부해라’를 줄인 말.
 열랩 : 열심히 레벨 업
 영자 : 운영자
 올만 : 오랜만
 유딩,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직딩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ㄹㄹ: 지랄(*)
 쌤?: 재미있냐?
 전번 : 전화번호
 전번감 : 전화번호를 알리다.
 조낸 : 존나>존내>조낸. 매우, 아주 등의 의미(*)
 줍밥 새(췌)리: 비속어(*)
 죽순이, 죽돌이 : 메신저에서 만나가고 있는 아이들(*)
 중빠리, 고빠리 : 중학생, 고등학생을 낮춰 부르는 말.(*)
 즐 :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 ‘꺼져라’ 정도의 의미.(*)
 즐- : 즐기다의 어간. 즐겜, 즐팅, 등으로 쓰임
 지대 : 제대로
 질러 : 계획한 대로 하자는 의미. 예) 강 질러!
 짱나 : 짜증나
 ㄸㅋ : 축하
 ㅂ : fuck you 란 의미로 쓰임.(*)
 초딩 : 말하는 것이 유치해서 ‘초등학생’이라고 비하하는 의미(*)
 좇현 : 추천
 출책 : ‘출석체크’의 줄임말

ㅋㄷ : 키득

ㅋㅋㅋ: 크크크

컴 : 컴퓨터의 약어.

탁탁탁 / 트트트 / TTT : 자위 행위.(*)

팀킬: 팀을 죽이다.

페인 :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 pc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ㅎㅇ : “하이”의 자음만 적은 형태

ㅎㅎㅎ : 흐흐흐

할룽 / 하이루 : 반갑습니다.

허접 : 그 분야에서 뒤떨어지는 사람 혹은 행동.(*)

헉 / 허걱 : 당황할 때

현질 : 현금으로 사이버 머니를 사는 일

현피 : 온라인상에서 싸인 양금을 현실에서 푸는 행위(예: 전화통화)

홍 : 형

(*)는 비속어 혹은 저속한 의미로 쓰이는 말.

다음의 사례는 한 학생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실제 경험한 일을 제공한 것이다.

(사례)

갑: 님하 스틸하지 마세요.

을 :

갑 : 님아!!!

을 : 조용히 하세요! 제 자리예요!

갑 : gg 님하 미쳤으삼?

을 : 지금 사비 거는거냐 썸아?

갑 : 아오!! 패쇄카!!!

을 : 야 기시카 전번까!

갑 : ggg 010-6***-3*** 전화해봐

(뚜르르르)

갑 : 여보세요?

을 : 즐! 딱(전화 끊는 소리)

다음은 청소년들 사이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웃긴대학’(http://web.humoruniv.dreamwiz.com/) 일명 ‘웃대’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 혹은 답글(소위 리플)을 몇 개 소개한다.

- 김그논 : 야 야, TTT가 도대체 뭐냐?
- 즐라재미없다 처음에 재미없다고할때 알아볼걸췌 언덕탱크의맛이나 봐라——크
크;;
- 조넨 충천이삼
- 남행들은 남자들의 로망이니 하면서 탁탁탁을 엄청나게 좋아(?)라 들 한다...
- 아들이 야동 봤다고 왜 우는 거지 _ _? 사 비 이부분에서 구라의 포스를 느꼈삼
- = 口 = 우와 침으로 오유에오다넛ㅠ 너무 당황스러우셨나봐요
- 과외선생님:a,,b어찌구 쉬폴 저찌구 알겠지^^?
- 빗추나머거라 =_ =凸
- 너무길잔아 사비리
- 중뽕니즘이로세
- 푸하하 ㅋㅋㅋ 조넨알흠다운 글이었음

이상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은 사이버 통신상에서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그것이 비속어라는 어떠한 인식이 없는 듯하다. 특히 ‘조넨’이나 ‘사 비’은 매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표현의 자유인가 인권침해인가?

세계 인권선언문 제 19조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입수·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 하여 표현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 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거법에 정치적인 의견을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표명할 때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여당은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론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것은 사이버 언어폭력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한편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도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이 있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만 볼 수 없고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사이버 언어폭력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첫째,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제 현실공간보다 훨씬 언어폭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우선 불쾌한 감정이 생겨서 욕을 하고 싶은 경우, 서로 얼굴을 보면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익명의 공간에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가 '나'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임진왜란 이후 우리말에 된소리화가 많이 나타났듯이 사회가 각박해지면 언중(言衆)들은 자연스럽게 거친 말을 사용하게 된다. 여유를 찾을 수 없는 사회 환경이 인간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언어표현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 그만큼 각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입시지옥'이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대부분 그들에게 심한 압박감을 준다.

셋째, 짧은 시간 동안 양적으로만 팽창한 우리나라의 아이티 산업, 아직은 올바른 사이버 문화가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우리는 세계시장에 내놓을 상품으로써의 아이티 산업만 생각했지, 아직 진지하게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를 못했다.

넷째,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 의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서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폭력임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언행에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기업들의 태도도 문제다. 인터넷 기업들이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유는 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영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가장 구매력이 왕성한 소비자로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적은 인력으로 사이버 수사대를 운영하면서 어찌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겠는가? 특히 해킹이나 음란 사이트 운영, 저작권 위반 등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대원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에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을 것이다.

일곱째,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다. 사회 통념상 보통, 우리는 욕을 먹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언어폭력은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5. 사이버 언어폭력 추방을 위한 대응 방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따라서 현재로도 사이버 언어폭력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적인 처벌 외에도 사이버 언어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정보통신 윤리법의 제도적 정비

정보통신 윤리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의미에서도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발행하는 게임 사이트나 사이버 뉴스 사이트 등에서 만이라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3) 사이버 윤리 교육 강화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의 선도 책임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있다. 학교에서 국어생활이나 정보산업, 도덕 등의 교과목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청소년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이란 말이 있듯이 독서를 통해 지성을 갖추지 못하면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지 못하고 독설[언어폭력]만 늘어놓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지·덕·체(智德體)를 함양하고 올바른 언어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

5) 사이버 통신사에서 비속어를 금지어로 등록하여 필터링함으로써 비속어 사용을 원천봉쇄한다.

사이버 통신사 혹은 인터넷 기업들은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사회적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영리를 앞세워 청소년을 소비자로서만 인식하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비속어를 금지어로 등록하여 게시판이나 대화창에서 입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즉, 언어폭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6) 회원제로 운영하여 IP 주소가 드러나게 한다.

되도록이면 각종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대화방을 이용할 경우 IP 주소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본인의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통신 불량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통신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금융권의 신용불량자처럼 사이버 통신 불량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통신회사나 인터넷 기업에 통보하여 얼마간 통신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6. 사이버 문화 강국! 코리아

교육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이 용어는 한 개인의 기대가 현실로 드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숨겨진 능력을 끌어내어 극대화시킨다는 교육이론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에게 사실이 아닌데도 “너는 목소리가 좋으니 커서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가 정말 노력하여 커서 방송국에 입사하여 아나운서가 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대의 경우인 사이버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사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의 정신세계와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언어폭력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마침,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 청소년 사이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소년 문화 사이트인 아이두넷(<http://www.idoo.net/>)에서는 ‘온라인상의 언어파괴는 이제 그만!’이란 제목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캠페인에서도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청소년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필자가 운영자로 있는 서울 성남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ungnam.hs.kr/>)에는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드물게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에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게시판 언어폭력이 심각했다. 그래서 게시판 폐쇄에 관하여 심각하게 학교 전체가 고민했었다. 음란물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생활지도부에 불려가 처벌을 받은 학생도 나왔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풀이가 끝났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자정 노력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매우 건전한 게시물이 올라온다. 특히 게시판 상단에 “이 게시판은 성남고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기분 좋게 모두 노력합시다.”라는 문구를 올려놓았더니, 이제 부적절한 게시물이 올라오면 운영자가 개입하기도 전에 학생들 스스로 자제를 촉구하여 게시글 등록자가 스스로 자기 글을 삭제하게 한다. 그리고 게시판 글쓰기는 로그인해야만 할 수 있게 했다. 그랬더니 사이버 언어폭력이 거의 사라졌다.

일반 포털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에서도 이와 같이 운영하고 심하게 언어폭력을 행

사한 경우는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여 처벌한다면 네티즌 전체에게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양적으로 성장한 ‘아이티 강국, 코리아’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사이버 문화를 지닌 ‘사이버 문화 강국, 코리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청소년의 비속어 남용은 정신세계를 황폐화한다

김형배(한글문화연대 학술위원, 국어상담소 상담원)

언어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단일한 규범 아래서 동질적인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과는 여러 모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의 언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표준어와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법을 파괴하는 언어 사용을 비롯하여, 국적 불명의 언어, 축약형 표현, 예절을 무시한 반말의 남용, 유행어의 무분별한 사용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이나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언어의 사용 등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란 본래 기존의 사회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세계의 변혁을 꿈꾸는 세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은어와 비속어의 사용에 의한 언어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대화에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말들이 수없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비속어가 빠지면 대화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사용 빈도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야 할 때에도 비속어 한 마디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이후의 진지한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비속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청소년들은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현상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을 아주 짧은 언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기분도 좋으며 재미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로는 감정이나 정서, 생각 등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없으며,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인 의사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범위가 한정됩니다. 또 언어를 인간관계 확대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집단 형성을 위한 폐쇄적인 기능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끼리끼리 간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다른 집단과 괴리감이 생기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격하고 비속한 언어의 남발은 대인관계를 황폐화합니다.

이들의 비속어 남용 습관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습관으로 인해 저질스런 인격을 형성하게 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학습하지 못하여 자제력 없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건들의 대부분이 의사소통의 부재가 원인이 된다는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줍니다.

언어는 사고의 도구라고 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즉 세계관을 달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국말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고, 이 한국말의 구조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여 우리 민족은 대체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닭이나 개의 울음소리를 언어마다 달리 표현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동일한 무지개 색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마다 그러한 색깔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언어 사용자의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우리 언어 사용자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즉,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비속어 남용은 결국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이며 그러한 폭력적 언어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폭력으로 물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언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들부터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방송을 비롯한 영화나 만화와 같은 매체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매체에서 여과 없이 쏟아내는 비속하고 거친 언어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모방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매체 언어의 순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실명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언어 폭력자에 대한 강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국어 시간에 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이 그들의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의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문

박영하(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먼저 최용기 선생께서 발표해주신 언어폭력의 유형과 실태, 그리고 언어폭력에 따르는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우선 최 선생께서는 언어폭력의 개념을 정리해 주셨고, 우리 삶 속에서 말조심의 필요성과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언어폭력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주셨고, 이를 위한 다양한 처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들 사이의 언어폭력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그 대책도 바르게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의 주제가 ‘청소년 언어폭력 실태와 추방대책’인 탓에 ‘실태’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원인’에 대한 진단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비속어나 외래어에 대한 대책** 부분입니다. 저는 상과 별을 오시에 주는 방법 즉, 바르고 고운 말을 만들어 퍼트리는 연예인(주로 개그맨이겠지요)이나 정치인 등 유명 인사를 표창하고, 저질스런 말을 유행하게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에게는 예컨대 ‘2005 최고 저질스런 말’을 선정·발표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강호영 선생께서는 학생들이 쓰는 외계어나 최신의 통신용어 등을 제시해 주셔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언어 사용 실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 나타나는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와 더불어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대한 자체정화 성공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교육 현장에 있는 동료로서 매우 흐뭇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호영 선생께도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은 청소년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선생께서 제시하신 성남고 학생들의 게시판 자율정화도 사실은 초기에는 게시판 폐쇄에 관하여 심각하게 학교 전체가 고민하고, 음란물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학생이 생활지도부에 불려가 처벌을 받은 학생도 나올 만큼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율정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남고와는 달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폐쇄하거나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게시판을 사용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를 포기한 셈이 된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것은 안이한 대응이 아닐까 하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주원인이 익명성 때문이고, 여론 조사 결과도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이버 수사대의 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요하고 교묘하게 자행되는 익명의 불특정 다수들이 벌이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언어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사 범죄자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이미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상처받은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어떻게 보장해 주고 보상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에서 두 분의 발제자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 드렸고, 주제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도덕교사로서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이나 생각이 기호나 소리로 표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언어폭력은 사람들 마음이 그만큼 거칠고 사나워진 것이니 마음을 부드럽고 순하게 바로잡는 노력, 즉 인성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성교육의 범주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야기를 언어폭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언어습관과 학교에서 교사들의 언어습관, 매스컴의 기사나 연예인들의 언어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세 주체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일이 중요합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사람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바탕위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도록 권장하며, 평소 바르고 고운 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적극 알리는 일에도 다 같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토론문>

청소년들이 왜 언어폭력을 쓰는가?

백은숙(학부모, 국어문화운동 문장사)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 아이들의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언어 교육을 담당할 주체가 사라져서, 학교는 힘이 없고, 가정은 무지하며, 사회는 무책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무너질 것이라고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까닭은 무엇이고, 그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버스나 전철 안에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두 마디에 한 마디는 욕이 섞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추임새를 넣어주면 흥이 나는 것처럼, 학생들 입에선 자연스럽고 욕이 나옵니다. 욕을 할 때는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섞어 더 강한 억양으로, 자극적으로 내뿜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욕설과 폭언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는지 제 나름대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로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느니, 인간성이 우선이라느니 하지만 결국은 시험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학원 시간에 쫓겨 친구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감정을 세세히 말하게 되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요즘 학생들은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 주로 채팅을 합니다. 채팅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빠르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앞뒤 말이 생략되어 말이 단문으로 끝나고, 그것도 길다 싶으니까 아예 한 단어나 한 글자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지면 ‘졸’ 한 마디를 함으로써 해결합니다. 아니면 앞에서 강호영 선생님께서 발제하셨듯이 이모티콘이나 어른들은 알 수 없는 기호를 사용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니 언어는 점점 더 감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 되어 언어체계마저 파괴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둘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방송언어를 모니터한 적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것은 언어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곳은 방송, 특히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빠꾸기를 날리다,’ ‘다 때려 뿌리고 치어 뿌라 마,’ ‘간뎡이,’ ‘망알년,’ ‘맨땅에 헤딩,’ ‘쭈쭈빵빵,’ ‘겉떡대다,’ ‘그냥 작살을 내,’ ‘꾼 is very 디피컬트,’ ‘중간에 이미지를 터닝할 때’ 등 대부분 은어, 비속어, 부적절한 외국어를 써서 자극

적이고 비상식적인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표현은 분명히 비상식적이고 어법에 맞지 않는데도 문제는 그것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출연자는 대접을 받고 속된 말로 ‘뜨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싸이의 ‘환희’라는 랩을 들으면 “나의 애로 댄스보다 케이블의 외설영화보다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뉴스라고 본다” “집단 구타, 왕따, 강자에게 상납하는 법”을 “매일밤 뉴스에서 본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르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생명인 뉴스마저도 시청률에 연연해 자극적인 화면을 많이 보여주려 방송사끼리 경쟁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난장판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나라 전체가 웬만한 자극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회가 무책임한 것입니다. 영화 ‘친구’가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려면 배우들이 욕과 폭력적인 언어를 거칠고, 자극적으로 쓰는 것이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재미있어 하며 영화에서 나온 말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만 뜨면 어디서든 듣고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유독 청소년의 언어폭력만을 문제 삼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청소년의 언어폭력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있을 터인데 그 문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부드럽고 곱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만.

둘째, 청소년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언행이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선생님들의 언행이 학생들의 언어폭력을 악화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청소년 문제를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은 언제나 가정은 무식해서 청소년을 지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요즘의 부모들이 어떤 면에서 청소년 언어폭력을 줄일 수 있는 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비법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토론문

전누리(구로고등학교 3학년)

-어느 쉬는 시간-

학생1: 아 저xx 또 하는 거 봐 바 쏘한다. 쏘. 미xx

학생2: (웃음) 저 xx 저렇게 하는 게 한두 번인가. 야야 작작 좀 해.

학생3: 알았어. 그만하면 되잖아 이 xxx들이. 됐냐? xxx들. 그만 하라면서 왜 낄낄 대냐?

학생2: 야, 우리가 언제 웃었어? 이 찌파 같은 xx야. 엉? 언제 웃었냐고?

학생3: 이 xxx야 아까 웃었잖아 이런 빌어먹을 xx야. 안 웃었냐고?

학생1: 야야 그만해. 이 xx녀석들아. 왜 또 시끄럽게 xx이야. 종쳤어. 저기 담임 온다. 빨리 앉아.

[교실로 국어(담임) 교사가 들어옴]

교사: 수행평가 오늘 걷는다고 했지? 안 가져온 xx들 다 앞으로 나와. 이런 또라이 같은 xx들. 너네가 반평균 얼마나 깎아 먹는지 아냐? 이런 정신 나간 xx들.

위 대화는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사실 위 사례는 청소년의 언어폭력 실태 중 일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흔히 일부 언론들에서 제기했듯이 현실을 더 깊게 살펴보면 욕설을 뛰어 넘어 심한 성적 언어폭력, 사이버 상—주로 채팅방—을 통한 욕설, 일방적인 비방 등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들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부터 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왜 청소년들이 이런 언어폭력을 자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끊임 없이 사회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인간은 언어, 예의, 풍습 등의 사회화과정을 거친다. 오로지 그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개인이 존재하고 있는 집단에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발맞추어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바로 어떤 환경—미디어, 언론—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환경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학교이다. 이 두 사회집단의 공통점은 바로 예의, 언어 등 교육,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 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화와 함께 언어폭력이 자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정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정에서 많은 부모들은 부모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아이들을 훈계한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이런 훈계의 과정 중 욕설, 즉 언어폭력이 수행된다. 이 직접적인 언

어폭력은 아이들에게 학습된다.

학교의 경우는 어떨까?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이 집단 속 각 개인이 혈연관계가 아닌 또래관계, 사제관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언어폭력은 더 쉽게 유발된다. 가정에서 언어폭력을 학습한 또래친구(청소년)들은 역시 학교 친구들에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을 가한다. 단순히 언어폭력의 수행자가 가정의 부모에서 또래청소년들로 대체된 것일까? 아니다.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 역시 언어폭력의 수행자 역할을 가정의 부모에게 물려받는다. 위 대화에 제시된 사례는 교사의 언어폭력의 일부분인 예이다. 실제로 교사의 언어폭력은 단순히 욕설, 비속어 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 곧 “공부도 못하면서 왜 떠들어?” “뭐가 될래.” “넌 왜 그 모양이야?” “그것도 몰라?”, 신체적 폭력의 협박을 가하는 발언-‘죽을래’ ‘맞을래’ ‘오늘 끝장을 보자’-, 그리고 성차별적인 발언, 곧 ‘남자가...’, ‘여자가...’까지 교사들의 언어폭력은 가정에서 부모의 언어폭력보다 질적으로 결코 차이가 없다.¹⁾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금 제시하는 사례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례들로 직접 학생들의 경험을 채취한 것이다.

사례1)

수업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하고 있던 중 수행평가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을 일으켜 세워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묻는 상황이다.

선생님 : 너네 언제까지 해올 거야?

학생 : (장난스럽게) 싫어요.

선생님 : (버릇없게 이야기 하는 학생에게 화가 난 선생님)

너네는 부모님도 안 계시냐? 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던?

사례2)

수학 점수가 나왔다. 선생님께서 제일 점수가 높은 A와 가장 점수가 낮은 B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마디를 하셨다.

선생님 : 오늘 B는 A에게 매점에서 사탕과 빵을 사줘라, B는 “나는 공부도 못하는 데 돈까지 써야하는구나.”라는 비참함을 느껴 봐야 한다.

사례3)

여학교 체육 시간

1) 교사들의 언어폭력의 예는 객관성을 갖기 위해 문화일보-03.12.10일자 남녀교사의 성 차별적 발언에 관련된 기사, 연합뉴스-03.08.25일자 이재아씨의 한양대 교육석사 논문<교단 폭언 실태조사 연구> 소개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

여학생 : 선생님 저 월경 시작해서, 오늘 수업 못하겠어요.

선생님 : 그럼 내가 10달 동안 생리 못하게 해줄까?

그러나 문제는 언어폭력의 횡수, 질적인 문제에 있지 않다. 바로 언어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이다. 신문 기사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 중 폭언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31.78%가 ‘조금 있다’, 4.21%가 ‘아주 많다’고 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20.09%였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답은 “25%(‘아주 많다’ 1.41%, ‘어느 정도 있다’ 23.94%)만이 폭언을 사용한다고 답해 정작 교사들은 이 같은 폭언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²⁾ 결국 교사들의 언어폭력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자행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폭언, 언어폭력에 대하여 불쾌해 하지만 그런 언어폭력을 학습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³⁾ 또한 학교 내에서의 언어폭력의 자행은 입시화한 국어 교육의 실패를 보여준다. 국어생활, 화법 등 국어 교과에서는 바른 국어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이미 입시화해 버린, 한낱 내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목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보이는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가르침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가르침일 뿐이다.

매스미디어, 인터넷 역시 언어폭력의 학습에 대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적절한 놀이문화가 존재하지 못하는, 오랜 시간 입시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와 인터넷은 쉽게 유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도구이다. 그러나 미디어와 인터넷은 사람들의 더 높은 시청률, 사람들의 더 높은 관심을 끌기위해 언어폭력이 수반된 저속한 문화를 보급한다. 한 예를 들어보면 SBS의 ‘일요일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X맨의 당연하지’라는 게임에서는 비방, 인신공격, 성차별적인 발언에서 신체적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발언 등 적나라한 언어폭력이 자행된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함께 언어폭력의 학습을 전달한다. 인터넷 역시 언급하지 않아도 적나라한 언어폭력이 자행되는 곳 중에 하나이다.

가정, 학교, 인터넷, 매스미디어를 통한 언어폭력은 청소년들에게 언어폭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내재 되게 한다. 또한 한 사회화 과정으로 인식 받게 한다. 마치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는 통과 의례처럼. 이처럼 청소년에게 내재화된 언어폭력은 사회에 끊임 없이 확대 재생산 된다. 그것은 그들이 또다시 한 가정의 부모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물려받고 이미 내재된 언어폭력의 자연스레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는가? 애석하게도 나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언어폭력을 없애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학교의 국어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도

2) 연합뉴스문-03.08.25일자 이재아씨의 한양대 교육석사 논문<교단 폭언 실태조사 연구> 소개 기사에서

3) 연합뉴스문-03.08.25일자 이재아씨의 한양대 교육석사 논문<교단 폭언 실태조사 연구> 소개 기사에서 나온 수치를 살펴보면 “폭언을 들었을 때 학생들의 감정 상태는 ‘아주 불쾌하다’는 반응이 43.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듣기 싫다’(21.96%), ‘조금 불쾌하다’(14.95%)의 순이었다.”

말했듯이 이미 입시화한 학교의 국어 교육은 단순히 얼마나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뿐이지 잘못된 언어생활에 대한 순화의 기능은 상실해 버렸다.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들은 어떨까? 역시 기능을 상실해 버린 국어 교육을 대체해 주지는 못한다. 단순히 슬로건만 있을 뿐 청소년들의 현실과 생각을 배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과 괴리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이제 대안을 제시할 차례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 역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평소 언어폭력의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나 역시도 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언어폭력의 한 학습자이자, 수행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대안의 조건이다. 바로 그 조건은 단순히 청소년층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언어폭력의 시대에서 그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력뿐 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끝)